

소세양의 연행시 연구*

이 월 영**

차 례

1. 문제제기
2. 연행시의 전개양상과 특징
 - 2.1. 북경가는 길: 여로의辛苦와 鄉愁
 - 2.2. 북경에서의 지체: 囚人感覺과 春愁
 - 2.3. 귀환하는 길: 歡喜, 悔恨, 閑愁
3.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양곡 소세양의 연행시를 고찰하였다. 소세양의 시집은 인생 후기의 은둔시가 그 대부분을 채우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행시가 오히려 소세양 시 세계에 대한 해석의 키를 쥐고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행시로 인해 그는 귀국 후 탄핵되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 결국 고향땅 익산에서 은둔하였기 때문이다.

북경으로 가는 길에 지은 시는, 출발부터 여정을 불편해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집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였다. 처처의 노정을 시의 재료[詩料]로 수용하여, 곳곳의 광경을 읊으면서, 그곳에 향수(鄉愁)를 반영하여 형상하였다.

북경에 체류하며 황제와의 만남이 지체된다. 그간 지은 시들에서는 답답함 우울함 그리움의 정서로 일관한다. 북경 거주를 감옥생활로 비유하며, 술과 시, 유람, 동행인들과의 유희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북경 떠날 날만을 학수고대한다. 그 시절은 꽃피는 화려한 봄이었지만, 소세양의 시에서 봄날의 흥치[春興]는 곧 봄날의 근심[春愁]으로 형상되었다.

북경을 떠나면서 지은 시에서는, 새장에서 풀려나 허공을 나는 새로 자신을 비유하며 환희작약하는 정서로 시작한다.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출발하던 때가 겨울이었는데, 북경을 떠나는 시점은 해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어 봄을 지나 여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시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적 정서는 변한 시절을 보면서 좋은 시절(봄)을 여로에 허비해버린 것에 대한 회한과 인생 무상감으로 변해간다. 귀환 길 마지막 시는, 석양을 바라보며 까닭모를 수심[關愁]에 잠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미래 발생할 사태를 인지하는 시적 예언[詩讖]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소세양의 연행시는 사행단으로서의 관료의식이 거의 전무하고, 그가 여로에서 가지는 개인적인 정서의 추이를 형상하고 있어, 사실 사행시답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시인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 소세양의 연행시가 귀국 후 탄핵의 빌미가 되었던 것도, 그가 사행단으로서의 책무의식 없이 개인정서에만 매몰되어 유락만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한 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시에 대한 가치평가는 개인의 정서를 경관과 결합해 형상화한 미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핵심어 : 연행시, 북경, 사적 정서, 향수, 춘흥, 춘수, 한수, 형상

1. 문제제기

소세양(1486-1562)은 조선 중기 중종조를 대표하는 시인 중 한 사람이다. 문인으로서의 그의 명성은, 1504년 19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그 다음 해 20살에 연산군이 율시로 선비를 취함에 일등하여¹⁾ 그의 시재를 온 나라에 드러나게 한 데서 비롯하였다. 1509년 24살에 권지승문원부정자로 그의 벼슬생활은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사신이 올 때면 사신들과의 창화를 목적으로 당대 최고 문인들이 임명되는 원접사 및 종사관으로 여러 차례 임명되었던 사실, 결국에는 문형(文衡)인 대제학에까지 오른 사실도 시인으로서의 그의 당시 위상을 입증한다. 또한 사대부 문인으로서 유일하게 황진이와 일정 기간 정인으로 동거했다는 소문이 전하거니와 그녀에게 받은 전별시도 전하는 독특한 이력도 결국 그의 시재(詩才)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소세양의 작품은, 모친의 연로함을 이유로 귀양(歸養)을

1) 그러나 그 이후 익명의 書獄이 일어나 공도 그것에 연루되어 결국 전시에 응하지는 못하였다 함.

간청해 해관(解官)된 뒤 익산에 은거해 살면서 쓴 작품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양곡집』 소재 10권까지를 차지하는 시집 중²⁾, 1520년에서부터 명실상부하게 완전한 은거³⁾에 들어가기 직전인 1543년까지의 시는 1권의 일부만을 차지할 뿐이며, 1534년 12월부터 1535년 4월까지 사행중(使行中) 지은 시는 3권 전체와 4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나머지는 1545년 이후의 작품으로만 편집되어 있다⁴⁾. 그래서 은둔시가 소세양 시의 대표성을 지니며, 윤채근은 소세양 시의 주제를 ‘은일한산의 정취’와 ‘밀폐된 현실에 처한 삶의 무상성’⁵⁾으로 이해하였는데, 그의 시적 주제가 실제로 그런 평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는 관직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그만 둔 것이 아니었다. 형식적으로는 연로한 모친이 살아 계서 봉양한다는 명분으로 해관편양(解官便養)을 명하였지만, 모친이 돌아가시고 임금의 특명으로 관직에 봉했어도 논자들에게 의해 저지당하고 탄핵당하여 결국 모친상을 기점으로 관직에서 영영 물러나게 된 것이었다.⁶⁾ 그 때의 그의 나이 이미 60에 근접해 있었고 관직에서 쫓겨난 상흔은 그의 후기 인생 전반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된다.

-
- 2) 민족문화추진회 간행 『한국문집총간』 23에 실린 『陽谷集』을 대본으로 함.
 - 3) 1538년 모친의 연로함을 들어 留養하기를 청하자 임금은 解官便養을 허락하였다가, 모친이 돌아가시자(1541) 임금은 소세양에게 특명을 내려 병조를 맡도록 하였으나(1543), 논자들에게 저지당했고, 인종이 즉위(1543)한 후로는 임명이 거둬지고 탄핵까지 당해 고향인 익산에 退休堂을 짓고 완전한 은거에 들어간다.
 - 4) 자세한 편집 내용에 대해서는 尹采根(「陽谷 蘇世讓 漢詩 研究- 16세기 한시사의 일국면 -」(『한국한문학연구』 19집, 1996), 124-125쪽 참고.
 - 5) 윤채근의 위 논문이 소세양 시에 관한 유일한 본격 논문이고, 그 이후로 이렇다 할 논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세양 시가 대부분 은둔시여서, 윤채근의 연구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도 그 한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윤채근 이외의 논문으로는, 홍석영의 「陽谷 蘇世讓 攷: 그의 生涯와 文學」(『文理研究』 1집, 1983), 이성형의 「양곡 소세양 연행시 연구 - 회동관문금(會同館門禁)의 인식양상(認識樣相)을 중심(中心)으로 -」(『漢文古典研究』 26집, 2013) 등이 있으나, 전자는 소세양의 위인과 생애에 관심을 집중한 반면 소세양 시를 분석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살핀 것과는 거리가 멀며, 후자는 소세양 연행시 중 북경 체류와 관련된 시를 자료로 역사적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을 뿐이다.
 - 6) 소세양의 관직생활 경력에 관해서는 洪暹이 쓴 소세양의 碑誌를 참고하였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작품을 두고 볼 때, 연행시가 그의 시작생활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유한다. 일단은 소재 면에서, 기행시에 해당하며, 한유(閑遊)와 인생 무상(人生無常)을 읊은 양곡시 전반적인 범주에서 일탈해 있기 때문이다. 왕의 부름을 받고 청나라 왕자 탄신을 축하하러가는 엄중한 사행길에 올라, 북경에서 체류했다가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까지의 우여곡절과 다단한 경험 그리고 그에 관한 다기한 심정들이 연행시에 구체화되어 있다. 일정기간 일상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인지하고 형성한 시들은 곧 소세양의 분신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 시들은 사행시로서의 독자성을 지니지만 동시에 그의 다른 시세계와도 연관성을 지닐 것이며 그의 시인으로서의 특성 또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세양은 중국 황태자의 탄신을 축하하는 진하사의 임무를 띠고 계사년 1533년 12월 25일에 한양을 떠나 그 다음 해 1534년 2월 25일에 북경에 도착해 45일간 체류해 있다가 3월12일에 귀국 길에 올라 4월24일에 북명을 하여, 총 157일 간 사행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행시의 편집 뒤에는 특이하게도 소세양이 직접 쓴 후기를 남기고 있어, 연행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의 후기에 따르면 사행(使行)을 함께 했던 서장관 이몽필, 질정관 권응창과 더불어 날마다 시를 수창하는 것을 일과로 삼음으로써 힘든 여정을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가 탄핵의 빌미가 되고 만다. 사신이 사행 중 사적인 시를 주고받은 것이 비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소세양은 '성정에서 근본하는 마음 깊은 생각을 술회하는' 것이 시이기에 시인들이 시안(詩案)으로 화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자신의 사정도 그러리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소세양의 시인적 성향이 관리로서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상처받은 소세양은 시에 연루되어 화를 입은 전례를 생각하며 원고를 불태우려 했지만, 아들 수(遂)가 몰래 수습해두었다가, 1539년 중국황제가 태자를 책봉하고 보낸 사신의 원접사가 되어 사신을 영접하고 배웅하였던 그 때 황화집(皇華集)이 이루어지자,

수는 본인이 보관해두었던 사행시를 비로소 꺼내 보여주었고, 소세양 자신이 후기를 썼다⁷⁾고 한다.

시로 인해 탄핵당한 고초를 입은 지 5년 만의 일이었다. 이 연행시로 인해 소세양은 탄핵당하고 결국 익산에 내려가 은거하게 되었으니, 연행시가 그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실로 다대하다. 본고는 이 연행시의 분석을 통해서 소세양의 시인으로서의 역량과 특성, 그리고 소세양 시에 대한 기존 평가의 문제점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2. 연행시의 전개 양상과 특징

본 연행시는 노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시공간적인 이동을 추적해가며 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소세양은 길가며 목격하고 겪은 갖가지의 광경 및 사건들을 시에 수용하였으니, 그에게는 旅路가 곧 시료였다.

연행시는 총 221제 258수이며, 〈부벽루(浮碧樓)〉에서 시작해, (황해북도 평상군 옥촌리 예성강에 있는) 저탄을 건너며 쓴 〈도저탄(渡猪灘)〉으로 종결된다. 본고는 편의상 선천 철산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해 북경에 도착하는 과정을 첫 단락으로 나누며, 재 북경 시 겪었던 여러 사건들은 둘째 단락, 북경을 출발해 귀국하는 과정을 마지막 단락으로 설정하겠다. 시간적 순차에 따른 공간적 이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7) 歲在癸巳十二月 余受進賀之命赴燕 翌年四月 乃還 初自遼城 行到牛莊 路長馬疲 殆不能堪 與書狀官李司藝夢弼股卿 質正官權脩撰應昌景遇 日課賦詩 少忘其道途之遠 鞍馬之勞 猶子巡從行 仍撰次成集 還朝後 有言其奉使做詩之非 至於彈覈 余念詩之道 根乎性情而發乎言語 暢敘其幽懷 故自古騷人墨士 爭樂爲之 而或有坐是被禍者 是集之作 初發於羈旅困苦之中 而乃有不虞之謗 詩之累身如是夫 自是以後 絕意不作 且欲焚稿 兒子遂潛藏其家 祕而不傳 今年春 迎送華使于江上 皇華集既成 遂乃袖此集來示 感舊之念 忽萌於懷 於是 識其行邁之始末于後云 龍集己亥秋七月既望 屏岳子 書于靜觀齋(『陽谷集』 권4)

2.1. 북경가는 길: 여로(旅路)의 신고(辛苦)와 향수(鄉愁)

첫 시 〈부벽루〉는 2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행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계사년(1533)을 보내는 송년시적 의미와 중첩되어 있다. 대동강은 얼어붙었고 하늘에는 눈이 가득하다. 주인이 원하는 3백 잔 술로 4천리 길을 잊고 싶다. 추운겨울, 길을 떠남, 송년의 이미지가 중첩되며 여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된다. 공적인 사행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사명감 대신 여로 중 겪을 사적인 정서에 대한 염려가 우선하였다. 그러면서 2수에서는 문득 부친의 가르침 받들어 까까옷 입었던 일과 패옥소리 울리며 경연에서 임금을 모셨던 일을 떠올린다.

암록강을 건너기 전에 철산군에 이르니 그 곳 수령 신구수(辛龜壽)가 문루(門樓)를 새로 짓고서 소세양에게 편액을 구하였다. 아예 ‘그리움’을 함축한 ‘망운(望雲)’으로 누대이름을 짓고서 시를 짓는다. 8구 시중 후반부 4구이다.

松低官道棲殘雪
柳暗郊居惹暮煙
望斷白雲歸未得
夕陽芳草思綿綿

소나무 나지막한 관도에는 잔설이 깃들어 있고
버들 빛 짙은 교외 인가에서는 저녁연기 피어오르네.
아득히 흰 구름 바라보나 돌아갈 수 없으니
석양 방초에 그리움 끝이 없이 이어지네.

잔설이 남아있는 관도는 을씨년스럽다. 버들빛 짙은 교외의 인가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곧바로 집 생각을 연상시킨다. 먼 곳 흰구름을 바라보며 그 흰 구름 머문 집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신세임을 자탄한다. 저물녘 방초 들판마저도 끝없이 이어지는 그리움 이미지로 형성된다. 저녁 연기(暮煙), 멀리 바라보이는 구름(望雲), 방초(芳草) 등의 의상(意象)은 모두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형상한 것이다.

암록강을 건너 목계 된 곳이 우가장(牛家莊)으로, 중국인들과 처음 접한 곳이다. 수백 가가 있는 성 안이지만 황량하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관리들은 예모도 없다. 예물을 요구하고 물도 대접할 줄 모른다. 맘에 맞는 것 하나 없다. 밥 지어 먹고 노곤해 누웠지만 추운데다 깨진 창으로는 서리바람 들어오고 오

랑개 경계하는 딱딱이 소리 끊임없이 들려와 전전반측 잠들지 못하고 애간장만 끓을 뿐이다. 어서 빨리 황제를 알현하고 깃발 돌려 고국으로 가고 싶다. 압록강을 건너 처음 묵는 중국 땅 우가장에서, 소세양에게는 오직 ‘그리운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스산하고 황량한 풍경의 <삼차하(三叉河)> 그리고 <고평(高平)>과 <반산(盤山)>을 지나며 여회(旅懷)와 고향생각은 깊어간다. 그러다 <여양(閭陽)>으로 가는 도중 <의무려산(醫巫閭山)>을 바라보며, 우장을 떠난 뒤로 산을 보지 못하다가, 씻은 듯한 의무려산 모습에 자신의 집이 있는 인왕산을 떠올리며 기뻐한다. 몸은 이미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은 끊임없이 집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여양>에서 장안을 바라보니 집 떠난 지 3개월이건만 겨우 반절 길 지났을 뿐이다. 중국 사람들은 사신 무리를 빙 둘러 서서 바라보며 속이고 비웃고 거만하게 흘려보며 번거롭게 불러대기까지 한다. ‘평생 우물 안 개구리임을 달갑게 지켜왔는데, 오늘 바람 속의 꽃이 되고 말았다!’ 천애(天涯)에서 고향생각에 눈물만 흐르고, 거울 속 노쇠한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질 정도로 고달픈데, 냉랭한 구들에서 신잠 자다 새벽 닭울음소리에 일어나 다시 행장을 재촉한다. 여로의 고단함과 향수를 읊은 시는 계속 이어진다. 고단한 잠자리의 꿈조차 평온하지 않고⁹⁾ 한잔 술로 그 고달픔을 위로하고, 새벽이면 여지없이 길을 떠난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좋은 시구는 쌓여가 그나마 위로를 받는다.¹⁰⁾

행산(杏山) 길에서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땅을 깎을 듯한 광풍에 쓰러지면 서도, 피곤에 지쳐 말위에서 우연히 잠깐 잠들었는데, 고향 뜰의 매류(梅柳)가 봄인 것을 꿈속에서¹¹⁾ 본다. 고단할수록 화창한 봄철일 고국의 집이 점점 더 그리울 뿐이다. 그래서 꿈으로 보기까지 하며, 어느 때나 황제 계신 곳을 떠나

8)平生甘守井底蛙 此日便作風中花

9)羈危眼未穩

10)〈宿沙嶺次景遇韻〉: …句吟成壘 窮愁酒破城 鷄鳴問前路 韉馬又晨行

11)杏山晨發冒黃塵 剗地顛風欲倒人 馬上偶然成小睡 故園梅柳夢中春 千里關河身已遠 五雲宮闕夢先馳

나의 땅으로 달려갈까¹²⁾라고 푸념한다. 〈楡關途中(유관도중)〉으로 제명한 시이다.

疊障連滄海	첩첩의 산봉우리 창해에 잇닿아 있고
雄關隔塞垣	웅장한 유관은 변방 담을 사이에 두고 있네
馬嘶芳草路	말 울음소리 방초 길에서 나고
人語綠楊村	사람들 말소리 푸른 버들 마을에서 들리네
景物撩春興	경치는 봄 흥취 돋우는데
風煙慘客魂	풍광은 나그네의 마음 비통하게 하는구나
應須沽美酒	모름지기 맛 좋은 술을 사서
一醉欲忘言	일단 취하여 말을 잊고자 하노라

길가는 도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이다. 방초길에 말울음소리 남기고 가는 지친 사행 무리, 버들에 물이 오른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린다. 봄기운 방창한 봄날이다. 그런데 이런 봄의 풍광이 나그네의 마음을 더 비통하게 만든다. 춘흥(春興)은 나그네에게 오히려 춘수(春愁)를 느끼게 한다. 술을 몽땅 마시고 그 근심을 잊고 싶다. 그래서 지나다 말을 멈춘 곳은 노봉구(盧峯口) 주막이다. 수양버들에 술집깃발 흔들리니, 다정한 나그네 말을 멈추고 머물 수밖에 없다. 구슬발 반쯤 걷어 올린 동창은 이미 밝았고, 여인(기녀)들은 약속한 듯이 여린 파잎 같은 손가락으로 눈썹을 그리고 있다¹³⁾. 점사에는 심신을 위로할 술이 있고, 그 술자리의 흥취를 돋우는 기녀들이 있는데,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거울을 보면서 섬섬옥수로 단장하고 있으니, 그 시각은 점사의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아침이다.

산 넘고 물 건너 진관(秦關)에 들어간 뒤 그 곳 쌍망관(雙望館)에서 현판을 차운하여 쓴 시에서는, ‘주광(酒狂)이 어디에서 임리(淋漓)하게 술 마실 수 있을까? 좋지 않은 시들은 모름지기 차례로 산정하리라¹⁴⁾’고 말한다. 스스로를

12) 〈連山〉: 幾時辭帝里 歸路走吾州

13) 〈過盧峯口店〉 門外垂楊拂酒旗 多情立馬爲移時 珠簾半捲東窓曉 依約春蔥畫翠眉

‘주광’이라 지칭하듯 그는 이르는 곳마다 술로 위안을 얻었고 그 모든 정황을 시에 담아 다듬었다. 여정 중 그의 괴로움은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중되었다. 그래서 늘 귀향을 꿈꾸었으니, ‘날개가 생겨 날아가는 것을 동경하기도 하고¹⁵⁾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몽유하기도¹⁶⁾ 하였다.

시와 술은 고단하고 힘든 여로를 견디는 기구였지만, 그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은 입에 맞는 음식¹⁷⁾이었다. 양번관(陽樊館)에서 몇 종류 채소 다발을 사 그것으로 끓여주는 국을 먹고 기뻐서 쓴 시¹⁸⁾에서, ‘끓주린 창자가 이를 얻고서 자빠질 듯 기뻐는데, 한 젓가락질에 남은 것이 없다’고 표현한 뒤에 다음과 같이 끝맺었다.

嗟我客久無適口	아, 나그네살이 오래도록 입에 맞는 것이 없었는데
忽覺旅況差便安	나그네 사정 조금 편안해짐 문득 깨닫도다
床頭倒身甘寢罷	침상에 몸을 처박고 단잠을 자니
一飽未暇論辛酸	일단 배부르면 신산함을 논할 겨를이 없네

오랜 노정에서 물리적이고 심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입에 맞는 음식이라곤 없어 굶주려 허기져 있다가 몇 종류 채소 다발로 양번관 주인이 모깡(筆羹) (채소에 고기를 넣어 끓인 국)을 끓여줘, 그것을 먹고 난 뒤 변한 마음을 말한 것이다. 배가 부르니 신산을 논할 겨를도 없이 이 잠간의 지락을 만끽할 수 있었다. 입에 맞는 음식을 먹고 포만의 편안한 쾌락을 느끼는 이 광경은 역으로 노정에서 겪은 물리적인 신고의 강도를 옹변한다.

길가다 목격하거나 겪는 소소한 일을 읊은 시 중, 북경 가까워지면서 발견한 기루(妓樓)의 광경을 읊은 <삼하관유감(三河館有感)>이다.

14) <雙望館 次板上韻>…酒狂何處淋漓飲。詩惡應須次第刪 遙想帝城花似海 一年春色轉頭間

15) <渡灤河>…我欲升之望故鄉 此身安得生羽…

16) <次記夢韻>…魂夢不知歸路遠…

17) 배맛을 묘사한 <食梨>에서도, ‘먹고나니 몸이 신선된 듯해’라고 감동하였다.

18) 陽樊館買數種菜把 喜而賦之

遊冶誰家女	유야(遊冶)는 어느 집 여자인가
鉤簾日暮時	발을 걷는 해저물녘이네
眉凝濃翠黛	눈썹엔 검푸른 먹이 엉겨있고
脣學淡胭脂	입술에는 연한 연지 그리는 것을 배우네
不被周文化	주나라 문화를 입지 않았으니
焉知漢廣詩	어찌 한광(漢廣) 시를 알리오
傾城非倚市	성을 기울일 만한 미인은 몸파는 창녀가 아니니
回首獨含悲	머리를 돌려 홀로 슬픔 머금네

해질녘 발을 걷고 질게 화장하고서 객을 유혹하는 창녀 유야를 바라보며 읊은 시이다. ‘유야’는 ‘주색에 빠져 방탕하게 노는 것’ 또는 ‘방탕을 일삼는 탕아’를 의미하는데, 소세양은 이를 기녀의 이름인양 사용하였다. 그러면서 『시경』의 〈한광시〉를 알 리 없는 그녀가 어찌 절도를 알 것이며, 몸을 파는 창녀가 경성지색일 수도 없으니 비애를 머금고 머리를 돌린다고 표현하였다. 앞서 ‘여린 파 잎 같은 손으로 눈썹을 그리고 있다’고 노봉구 점사를 묘사한 것처럼, 행객(行客) 소세양이 지닌 기녀들에 대한 유락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이상 입경 이전의 여로시를 살펴보았다. 노정이 시료로 수용되어 기행시 성격을 지녀, 여정의 지명과 들른 곳 등 공간적인 처소가 일일이 드러나며, 그 각각의 공간에서 겪은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는데, 여로에서 드러내는 지배적인 정감은 향수이다. 그 정서의 표출에 소세양은 경(景)에 정(情)을 결합하는 정경교용 수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결과 조성된 의상(意象)은 뛰어난 미감을 성취하고 있다. 이처럼 사행 길에서 소세양은 공인으로서의 명분보다 자신의 정서에 더 몰입되어 있으며, 심적인 물리적인 신고를 읊는 시들의 비중이 큰데, 이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상관한다. 자연히 그 신고를 감하거나 이완시키는 기제를 강구하였으니, 그것은 시와 술, 그리고 일거에 심신의 피로를 잊게 하는 음식이 주는 쾌감, 그리고 유락이었다.

2.2. 북경에서의 지체: 수인감각(囚人感覺)과 춘수(春愁)

드디어 북경 경계인 통주(通州)에 이르게 된다. 그 곳을 지나가면서 읊은 〈過通州市〉이다.

揚鞭午過通州市	씩씩하게 말 몰아 정오에 통주시를 지나는데
衆味薰香滿眼前	온갖 음식의 향기가 자리에 가득하네
安得腰纏十萬貫	어찌하면 십 만 께미를 허리에 차고
飯家取飽酒家眠	밥집에서 배불리 먹고 술집에서 잠잘 수 있을지

통주는 북경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다. 온갖 맛있는 음식 냄새들이 코를 찌른다. 돈만 있으면 배불리 먹고 술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다. 이곳에 이르러 가진 강한 욕망은 배부르게 먹고 술 취해서 이완되어 숙면하는 것이었다. 사행인(使行人)로서의 책무의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북경에 이른 사행단은 조선 사신들이 유숙하는 곳인 옥하관(玉河館)에 머문다. 목적지인 북경에 도착한 사신 소세양은 봄날이 쉬 가는 것에 대한 근심부터 시작하는데 그 속내는 이국땅에서 봄을 보내고 고국의 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데 있다. 소세양에게 봄은 청춘이었고, 그래서 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것을 청춘을 놓치는 것과 비등하게 감각하였다. 그래서인지 처처에서 봄이 지나는 것과 귀밀털이 희어지는 것을 연관시켜 애석해하였다.

이어 옥하관에서 목계 되기까지 목격한 것을 장편 5언고시¹⁹⁾로 기술하였다. 새벽에 통주를 떠나 조양관(朝陽門)에 이르러 중사(中使)들의 기찰을 거친다. 우뚝한 황금궁궐, 발을 걸어 올린 유아녀(遊冶女)들, 구경하는 중국인들, 번발한 오랑캐들과 그들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들이 열거된 뒤, 옷과 이불은 흙침상에 펴고, 갈대 자리에는 모직 휘장을 치고서, 우레처럼 코를 골며 날이 밝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잠들었노라고 기술하였다. 북경에 이르러 낯설고 부산한 하루를 지내고, 그간 쌓인 피로가 몰려오면서, 숙소인 이곳에 도착한

19) 〈玉河館 舊名烏蠻驛〉

사행은 비로소 안도의 숙면을 취하게 된 것이다.

옥하관에 들어간 뒤 이어 지은 시는 바로 5수로 이루어진 <오사가(五思歌)>이다. 임금 부모 형제 아들 집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읊은 시이다. 특히 부모님을 그리워 한 시에서는, ‘멀리 바라보니 흰 구름만 피어오르는데, 몽혼은 밤마다 집 정원에 가지 않는 날이 없네²⁰⁾’라고 읊고 있어, 고국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북경에 있는 조선 사신들 숙소인 옥하관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시제로 오른다.

그러다 2월 그림일 4경에 드디어 황제가 거처하는 궁궐에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황제는 아프다는 이유로 조회하지 않았고 예부상서를 만나려 했으나 그도 또한 나오지 않아 헛걸음하고 만다. 봄이 지나가고 있다. 그곳에서의 하루가 아까울 뿐이다. 소세양은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허송하는 나날을 수인 생활로 비유한다. <만성(謾成)> 2수 중 두 번째 시이다.

白頭孤館楚囚同	흰머리 늙은이에게 외로운 객사는 초나라 죄수와 같으니
行坐逍遙密室中	밀실에서 앉았다 섰다하며 서성이네
一段春愁禁不得	일단 든 봄 근심은 금할 수 없는데
滿城花木雨濛濛	성 가득한 꽃나무에는 보슬보슬 비 내리네

간힌 죄수처럼 객사 방안에서 좌불안석하며 봄 근심 어쩔 수 없는데 꽃나무에는 비마져 보슬보슬 내리고 있다. 불타는 듯한 복숭아꽃 잠자는 듯한 버들 [桃花如燒柳如眠 .. 해질녘에 난간에 기대어 수심도 말하지 못하는데落日倚闌愁不語, 고향은 동북으로 삼천리나 떨어져 있다故鄉東北隔三千²¹⁾]. 봄철에 고향을 떠나 있자니 봄 수심은 깊어지고 황제와의 조회가 성사되지 않으니 수인생활처럼 답답할 뿐이다. 타향에서 좋은 봄날을 보내는 것에 대한 푸념은 계속된다. 오히려 편치 못한 상황에서 춘의료(春意鬧)한 가절을 만나자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고 덧없이 흘러가는 청춘(푸른 봄)이 더 애석하다. 이런 정서

20) 白雲遙望但依依 夢魂無夜非庭闈

21) <謾成> 첫 번째 시 중.

는 반복되어 표현된다. 붉은 꽃잎 햇빛 받고 빛나 구름비단 펼쳐진 듯한데, 광풍이 불어오자 수만의 꽃잎들 흩어지고 만다. 그리고 병든 나는 삼춘에 텅 빈 객관에 머물러, 세월 이미 기울어져 감을 차탄한다…술잔이 이르면 모름지기 대작해야 한다. 금년에 어찌 다시 봄빛을 볼 수 있다고…²²⁾ 이처럼 타국에서 봄을 보내고 있음을 수심하여 술로 위로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옥하관에 지체되어 황제와 조회하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자, 제독청 정원 등 풍광 좋은 곳에 꽃놀이를 다니면서 술 마시고 유희하기도 한다. 봄의 풍광이 아름다워 어디를 가도 맘이 흔들리지만 고향의 봄처럼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 그럴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진다. 그래서 심지어는 ‘긴 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등불 심지 돌우니 날랄한 소리가 우리말[鄉音] 같구나²³⁾’라고 표현하기에 이른다. 등불심지가 타며 내는 소리는 고향에서 들던 것과 다름없으므로 ‘향음’ 같다고 반가워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소세양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인 듯,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 진낭(陳娘)과 동행자인 이몽필(李夢弼) 사이에 있었던 로맨스를 추억하며, 기녀 진낭 입장을 대신해 이몽필에게 답하는 3수 절구시²⁴⁾를 짓는다. 첫수에서는 애뜻한 이별의 정한을 말하는가 하면, 둘째 수에서는 떠나간 임을 기다리는 시름을 읊었고, 셋째 수에서는 정인을 꿈속에서 뵈고 깬 뒤 그리운 정을 표현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一刻春宵抵萬金	짧은 봄 밤 만금에 해당하니
夢中神采覺來欽	꿈에 본 빛났던 모습 깨어나 흠모하네
大同江水深千丈	대동강 물 천 길로 깊으니
須把離愁較妾心	이별의 근심을 첩의 마음에 견주리라

정인 이몽필을 향한 기녀의 농염한 정을 상상해 남성인 양곡이 쓴 시이다.

22) 〈後園桃花半落 小飲其下 閏二月初二日也〉

23) 永夜思歸無夢寐 挑燈刺刺伴鄉音

24) 〈代陳娘 奉答殷卿御史〉 三絕

조선조 사대부들에게는 첩부자의(妾婦自擬)하는 시적 관습이 익숙했던지라 여성화자 시를 짓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왕의 명을 받고 사신으로 간 처지에서 자신의 임무에 대한 고민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시는 찾아볼 수 없고 끊임없이 춘수를 형상하더니, 심지어 기녀의 입장을 대신해 이처럼 농염한 시를 썼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기이하다. 앞서 소개한 기녀, 유아녀에 대한 관심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며, 황진이와의 로맨스도 연상되는 대목이다. 당시 엄격하고 진중한 성리학자들이 보았다면 이마를 찌푸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동반자들과 시를 주고받는 것이 탄핵의 이유였음을 감안할 때, 여성들과 관련된 소재의 유락적인 태도 또한 문제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경 체류에서 양곡에게 위안을 주었던 것은 술과 지기였다. 술은 시와 함께 양곡을 따라다니는 평생의 벗이었지만, 중원 땅에서의 지기는 사행단으로 같이 갔던 권응창과 이몽필이었다. 그들과 더불어 술 마시고 시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속의 수심을 토로할 수 있었다. 권응창 시를 차운한 시, 이몽필 시를 차운한 시 각각 한 편씩 소개한다.

逆旅身如寄	여관에 몸을 맡긴 듯하니
拘幽氣未舒	수감된 것 같은 기운 펴지 못하네
青春行荏苒	청춘은 덧없이 흘러가고
白髮日蕭疏	백발은 날로 성글어지네
頗學色空寂	자못 색-공적을 배웠는데
誰憐權李子	누가 권씨 이씨와 나를 가엾게 여기리
相隨復相晤	함께 길가며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肝膽寫無餘 ²⁵⁾	마음 속 진심을 남김없이 쏟아놓네
蕭颯驚衰鬢	쓸쓸한 바람소리에 쇠한 귀밑머리 놀라니
龍鍾咲此身	노쇠하여 병든 이 몸 우습다네
日移花影轉	해 옮겨가니 꽃 그림자 옮겨가고

25) 〈次景遇偶詩〉

簷暖鳥聲頻	치마 따뜻하니 새 울음소리도 잦네
曉夢迷千里	새벽꿈에서 천리를 헤매니
歸心負一春	돌아가고픈 마음 한 해의 봄을 저버렸네
同行盡才俊	동행들 모두 준재이니
相對更傾困 ²⁶⁾	마주하여 다시 속마음을 털어 놓네

동행인들에게 털어놓은 진실한 속마음, 구유되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함, 청춘은 가고 백발이 성성함, 천리 길을 공유함 등의 소회가 중첩되어 있다.

중원에 두 달 동안 ‘헛되이’ 유체되어 있으니, 땅 가득한 봄 그늘에 하루가 마치 일 년 같기만 한 와중에²⁷⁾, 윤월21일 황제의 질병이 나아 조회를 보신다는 소식에 접하며, 응당 궁궐에서 순소(舜韶)를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²⁸⁾. 그러나 일이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불면 속에서 전전반측하게 되고, 해인사를 유람하기도 하며, 국자감에 나아가 알성(謁聖)하기도 하며, 20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맞이하고 전송하는 하마연과 상마연에 참여하며, 귀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기도 한다. <상마연(上馬宴)>을 소개한다.

宴開迎餞兩旬間	맞이하고 전송하는 잔치 스무날 동안 열리니
三月皇州却未還	3월에도 황주에서 돌아가지 못하네
柳絮白於衰客鬢	버들개지는 쇠잔한 나그네 귀밑머리보다 더 희고
桃花紅勝美人顏	복숭아꽃은 미인의 얼굴보다 더 붉구나
春愁黯黯延空館	어두운 봄 수심은 빈 객관에서도 이어지고
歸興翩翩滿故山	헛헛 돌아가고픈 흥취는 고산에 가득 하네
早晚尙當公事了	조만간 맡은 공사를 마치게 되면
拂衣長嘯出秦關	옷을 털고 길게 휘파람 불며 진관을 나가리라

윤월13일, 만국의 사신들이 모여 하마연을 치를 때도 양곡은, ‘이제는 황가

26) <次殷卿客中偶吟>

27) <自詠> 渴則求漿飽則眠 動非趨省靜非禪 中原兩月空留滯 滿地春陰日抵年

28) <閏月廿一日 帝疾愈 始視朝>…此身定不空歸去 應向明庭聽舜韶

(皇家)의 음악 실컷 들었으니, 오직 원하건대 중국조정을 하직하고 일찍 돌아 갔으면²⁹⁾이라고 읊었다. 때늦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도착을 축하하는 축하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생각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계속 하여 열리고 있는 상마연에 참여해서는 봄날도 수심 속에 갇혀 일만 마치면 옷을 털고 휘파람 불면서 진관을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한다.

그런데 황제와의 대면이 정식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다룬 시는 정작 없다. 황제와의 조회에도 그만큼 의미부여 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공사(公事)를 끝내고 ‘귀국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다만 하마연도 상마연도 각국 사신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귀국 전에 치러야 할 공식적 행사는 상사의식(賞賜儀式)이었다. 상사를 받기 위해서 연 삼일 동안 사경(四更)에 대궐로 나아갔지만, 다 면조(免朝)여서, 돌아갈 기약이 아득해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러다 3월6일 드디어 황제가 조회를 보게 되어 상사를 받는다³⁰⁾. 이에 관한 시는 단 한편으로 투식적인 경하시적 의미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 다음날은 붓집검사(驗囚)를 받고, 초10일 황제에게 하직인사를 드리고, 예부상서에게도 하직인사하러 기다리며 지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절뚝거리는 당나귀 내일이면 통주 길 지나리니, 황도에 머리 돌려 보면 한 꿈을 깬 듯하겠지³¹⁾’라고 표현한다. 황제의 조회에 나아가 상사를 받고 난 뒤 이미 마음은 북경을 떠나 귀국길로 들어서 있었으며, 북경에서의 두 달 가까운 체류기간 마치는 것을 꿈을 깨는 것(夢醒)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은, 여로에서 겪은 것과 같은 굶주림과 물리적인 역경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은 더해지고 그에 따라 객창은 수인생활처럼 여겨지는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북경 체류시들에서 쓰인 핵심어는 단연 춘수(春愁)이다. 화려한 봄날 승경을 찾아다니며 춘유(春遊)하기

29) 如今飽聽皇家樂 惟願辭朝早返輶

30) 〈三月初六日 帝視朝 乃受賞賜〉 緒袍高拱儼堯眉 旭日纔臨扇影遲 一代衣冠周典禮 千年文物漢威儀 織塵不到黃金闕 佳氣常浮白玉墀 海外微臣還拜賜 退朝空誦角弓詩

31) …塞驢明日通州路 回首皇都一夢餘

도 하지만 이는 도리어 봄날의 수심[春愁]을 깊게 할 뿐인데, 그 수심은 결국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귀착된다. 술과 시는 일상이었고 동행한 이들과의 창화와 유희는 그나마 위안일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상사의식을 마치고 북경에서 두 달 가까운 체류에서 벗어나 귀국길에 오르게 된 것을 꿈은 깬 것(夢餘)로 비유하며 기뻐한다.

2.3. 귀환하는 길: 환희(歡喜), 회한(悔恨), 한수(閑愁)

3월 12일에 드디어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북경을 떠난다. 북경을 떠나면서 읊은 첫 시³²⁾에서, 이별의 회포를 말하면서도, 북경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 ‘못에 갇힌 물고기는 옛 심연으로 돌아가고[池魚返故淵, 새장에 갇힌 새는 새장에서 놓여나네[羈鳥放籠囚]’로 말하는가 하면, 불별에 피어오르는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여윈 말이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도, ‘힘들고 고달프다 말하지 마오[勿云鞅掌苦], 유쾌할지니 어찌 근심하겠느냐[快哉何所憂]’라고 뱉었다. 삼숙연(三宿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연못에 갇혔던 물고기 새장 속에 갇혀있던 새처럼, 북경에서의 유체는 지루하고 불편하고 답답했던 것이며, 갈 길이 멀고 험할 것은 볼 보듯 뻔해도 수인처럼 갇혀 생활하던 곳에서 풀려나는 것 같은 해방감은 그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는 환희였다. ‘우습게도 돌아가는 마음 더욱 바빠져서[翻笑歸心忙更甚], 허공에 뛰어올라 새와 앞서기를 다투고 싶네[凌空欲與鳥爭先]³³⁾’였으니, 귀국에 대한 열망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정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 쓴 〈삼하로중(三河路中)〉³⁴⁾에서는 천리 길에 대한 막막한 심정이 표현되기도 된다. 봄이 지나고 있다. 신록도 짙어져 녹음이 지고 만화방창하던 꽃들도 다 저버려 이미 흔적도 없다. 말을 재촉해 빨리 돌아가고 싶어도 천리 길 아득하기만 한데 바람이 일으키는 모래 황

32) 〈十二日發北京〉

33) 〈發潞河館〉

34) 嫩綠連村暗 殘紅掃地無 一鞭催去意 千里隔脩途 風起沙如雪 田荒草欲蕪 今年春又旱 生理憫農夫

량한 잡초는 양곡의 마음을 심란하게 한다. 18일에는 영평에서 출발하여 큰 비바람을 만났는데 그간 여행길 고통 중에서도 가장 심하였다³⁵⁾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도롱이 입고 시료(詩料)를 찾아 나설 수 있으니, 황도에서 지체하며 돌아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³⁶⁾는 것이었다. 귀국의 ‘기쁨’과 여정의 ‘막막함’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유관(榆關)에 이르러 그 곳에서 숙박하며 타고 갈 수레를 기다리는데, 수레가 오다 달적(達賊)의 공격을 받아 위태로웠던 소식에 접하고 하고, 호랑이를 만나기도 하고, 흉악한 이민족과 대치하기도 하면서, 3월이 다하고 4월이 되는 시점에 산해관에 이르렀다가, 23일 드디어 산해관을 빠져나오게 된다. 그런데 동행인 권응창이 말을 타고 작은 시내를 건너다가 말이 홀연 물속에 누워버리는 일을 당한다. ‘옷과 신발 다 젖고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데, 옆 사람들은 자신들의 걱정거리인데도 박수치며 웃어 댄다³⁷⁾’ 역경을 당해서도 귀로 이기에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다.

북경에 가던 중 들려 그 곳 풍광에 반해 머물러 시를 지었던 양충병원림에 다시 들려 그때 썼던 운자를 사용하여 시를 짓는다.³⁸⁾ 화살처럼 튀는 공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자두열매 이미 열리고 장미 이미 저버려, 가던 때와는 이미 시절이 변해 있음을 말하였다. 북경으로 갈 때와 고국으로 돌아갈 때의 시절이 이미 변해있었던 것이다. 동관로(東關路)에서는 또 큰 바람을 만나 얼어지고 말도 절뚝거리는데 그 광풍의 위력을 오히려 쾌감으로 느낀다. 또 행산에서 소릉하(小凌河)가는 길에 비를 만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苦樂安所遇’라고 여유부린다. 이처럼 이미 시절이 변해버린 것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면서도, 귀국길이라는 사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귀국이 진행될수록 소세양은 서서히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소릉하〉라 제명한 시이다.

35) 〈十八日。發永平。風雨大作。咫尺不辨。人馬皆仆。西來行李之苦。此日最〉

36) 閑披襪襖尋詩料。猶勝皇都滯未歸

37) 濕盡衣靴顛未起。傍人拍咲自家憂

38) 畫閣鉤簾燕影斜。重來不復問誰家。名園依舊風煙好。年矢跳丸感慨多。穠李梢頭初着子。

薔薇架上已無花。多情主媼迎相問。前度郎君今又過

桃花春漲綠沍沍	복숭아꽃 봄철에 물이 불어 녹수 소용돌이치니
隔岸東西路自分	언덕을 두고 동서로 길이 절로 나뉘네
借問行人水深淺	길가는 사람에게 물이 깊은지 얇은지 물어보면서
歸心先逐渡頭雲	돌아가는 마음은 앞서 나루터 구름 쫓아가네

복숭아꽃이 떨어진 불어난 물이 넘실대는 계절이다. 그 물을 건너야 하기에 수심을 물으면서도, 마음은 먼저 떠가는 구름을 쫓아 앞서간다. 고국을 향한 촉급한 마음 때문이다. 이미 북경을 떠나 조국을 향해가면서 광풍을 만나고 험지를 지나면서도 귀국에 대한 기대감 안도감 때문에 한 웃음에 부칠 수 있었지만, 물이 가로 놓이거나 험지를 만나면 귀국이 지체되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소릉하 대릉하를 건너 이른 곳이 십삼산관(十三山館)이다. 그 곳에서 지나온 곳 앞에 보이는 곳을 전망하다 문득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다. ‘좋은 시절을 말 위에서 등지고 말았으니, 90일 봄빛이 가련한 것³⁹⁾’이다. 여양에 이르러서도 고향이 어딘지 바라보다가 ‘해저물녘 바라보니 더욱 혼미해지네’라고 안타까움을 표하는가 하면 광릉도중(廣寧途中) 비를 만나 지은 시 2수중 두 번째 수에서 급기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半載輶鹽未解圍	반 년 동안 절인 채소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니
沈腰瘦減不勝衣	허리 치수 수척해져 옷을 이기지 못하네
薊門遼海行應遍	계문으로, 요해로 응당 다녀야할 곳 두루 다녔는데
底事春歸猶未歸	무슨 일로 봄이 가도 돌아가지 못하나

절인 채소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사행 중 변변치 못한 음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당연히 허리띠가 헐거워질 정도로 수척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녀할 곳 이리 저리 다 다녔건만, 왔던 봄도 가는데 자신

39) 年華馬上孤負 九十春光可憐

은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탄스럽다. 귀국은 정해진 일, 고국에 가까이 갈수록 따라, 출발에서 느꼈던 환희는 오히려 멀어지고, 이미 가버린 좋은 시절을 타국에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허비해버린 것에 대한 회한이 깊어짐을 발견할 수 있다.

去年春盡在洛城
今年春盡遊燕京
年年佳節客中過
坐對落花空復情
春光更有明年好
人生其奈明年老
朝見紅顏妬花妍
暮看白髮欺霜皓
何如日飲無事酒
匹羅大杓不論斗
醉後耳熱歌鳴鳴
困倒客窓忘老醜
傍人不飲喚我狂
狂名於我真膏肓
我自狂兮人自癡
浮生百歲春夢忙⁴⁰⁾

지난해에는 봄 다하도록 낙양성에 있었는데
올해는 봄 다하도록 연경에서 노닐었네
해마다 좋은 시절을 나그네로 보내나니
앉아서 지는 꽃 대하다 부질없이 마음 서글퍼지네
봄빛은 다시 찾아와 내년에도 좋겠지만
인생은 그 어찌 하리, 내년이면 늙는데
아침엔 흥안이 아름다운 꽃 시샘하는 것 보았는데
저물녘엔 백발이 흰 서리 속이는 것을 보느구나
어찌하면 날마다 일없이 술 마시며
나대표를 짝하여 말술도 문제 삼지 않을지
취한 후 귀 달아오르면 소리 높여 노래하고
객창에 근해 쓰러져 노추도 망각하네
옆 사람은 술 마시지 않고 나를 미쳤다고 비웃으니
미쳤다는 명명 나에게서는 불치병이네
나는 절로 미치고 남들은 절로 어리석으니
부질없는 일평생 봄꿈이 바쁘다네

위 시를 지배하는 핵심어는 봄, 꽃, 부질없음, 술, 그리고 행락이다. 작년도 올해도 꽃 피는 찬란한 가절 봄을 나그네로 보내고 말았으니, 앉아서 낙화를 대하하니 부질없이 서글퍼지고 만다. 봄은 내년에도 찬란할 것이지만 나는 내년이면 또 달라져 있을 것이다. 아침엔 흥안으로 꽃 시샘하다가 저녁이면 백발이 서리인양 착각하는 것과 같다. 이 덧없는 인생에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언제쯤이면 일없이 밤낮으로 몇 말이고 마음껏 술 마실 수 있을까. 객창에서도

40) 〈三月晦日吟〉

취해 귀가 달아오르면 소리 높여 노래하고 쓰러져 노추조차 망각하였다. 술 마실 줄 모르는 옆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비웃는다. 이런 광기는 고향에 든 병처럼 고칠 수 없는 벽(癖)일 뿐이다. 나는 스스로 미치광이이지만 나를 비웃는 저들 또한 스스로 바보일 뿐이다. 부질없는 인생 어차피 봄꿈일 뿐인데, 청춘을 즐기고 술 마시고 행락하는 것 이외에 인생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어리석은 저들은 나를 비웃는 걸까? 덧없는 인생에서 봄날을 마음껏 즐기면서 술 마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일면 퇴폐적인 인생관을 피력한 시이다. 북경을 떠나면서 극도로 환희했던 흥분이 가라앉고 소세양은 다시 일상적인 정서를 되찾은 것으로 이해된다.

요양관에 도착하자 방목(榜目)을 보고서 형의 아들이 무과에 급제했음을 알고 기뻐하며 3수의 시를 짓는다. 그런데 이곳에 머무르면서 비를 만나 여정이 지체되기에 이르자, ‘반 년 나그네살이에 병어리 된 듯하고 집에서 천리 떠나 있으니 아는 사람도 없다. 객창에서 향불 사르는 것 이제는 너무도 지겹다. 약해주라도 마셔 이 근심을 잊고 싶을 뿐이다. 조만간 고향에 돌아가 계모임을 가지면 편안한 마음으로 장가(長歌)를 부르면서 실컷 울고 싶을 뿐이다⁴¹⁾’라고 심경을 토로한다. 이처럼 가버린 시절에 대한 회한의 감정, 무상감 등의 정서는 이후 계속 이어진다.

길을 가며 피꼬리소리 듣고 계절을 인식하며, 차가운 우물물 마시며 자신의 산수벽(山水癖)을 확인한다. 길가 해당화를 보고 시를 읊조리고, 비바람에 벗겨져 이끼 잔뜩 낀 왕상묘 비석을 보고 시를 짓는다. 삼료하를 지나면서는, 숲속에 갇혀 대낮에도 문 닫고 있는 적막한 시골풍경을 그리는가 하면 청석령(靑石嶺)을 지나면서는 행로난을 노래하기도 한다. 도처마다 풍광이나 느낌을 시로 담아낸 것이다. 침수참을 지나고, 고령의 풍광에 그 진형(眞形)을 시폭에 담고 싶어했으며, 연산(連山)에 이루어진 촌락을 읊기도 한다. <분수령(分

41) <遼陽館遭雨> 遼陽候館秣征馬 東風吹盡雨如瀉 正好清和時節也 自嘆留滯羈孤者 屋漏浪浪翻老瓦 昏霧重重塞長野 風動槐龍舞初夏 煙生林杪抹炊舍 半年爲客口如啞 千里去家知者寡 已厭旅態翦香她 安得愁襟澆若下 早晚歸臥鷄豚社 慷慨長歌淚盈把

水嶺))을 지나면서는 서쪽으로 갈 적과 지금의 변함을 이야기하다 또 다시, ‘절기는 이처럼 변하는데, 유자는 어찌 돌아가지 못하는지. 때때로 말 위에서 꿈꾸는데, 옆에서는 한가로운 구름이 나르네⁴²⁾’라며 귀가몽(歸家夢)을 말한다.

나장탐을 지나고, 초하동을 지나고, 통원보를 지나며 4행시들을 남긴다. 비가 심하게 내려 옹후하(瓮後河)의 인가를 빌어 묵기도 하며, 장항령도 넘는다. 이후로 이어지는 시들을 지나는 곳곳마다의 경관을 읊는 것이 주를 이룬다. <두령(斗嶺)>이라 제명한 시이다.

水如西子濃粧抹	물은 짙게 단장한 서시(西施) 같고
山似樊姬擁髻鬟	산은 쪽진 머리한 변희 같네
知有何人愛標致	어떤 사람이 표치를 사랑했는지 알겠나니
風流陣裏占清閑	풍류진에서 청한을 점유했었지

물이 불어나 짙어진 물을 곱게 단장한 서시로, 산을 쪽진 머리한 변희로 표현하여, 산수를 고대 절세미인들로 의인화하더니, 이런 표치를 안 사람으로는 풍류진에서 청한을 점유했던 당현종이라고 말하고 있다. 풍류진은 당현종이 양귀비와 술에 취하여 놀 때 각각 백여 명의 궁녀를 거느리고 양편으로 줄 세워 풍류진이라고 부르며, 서로 공격하고 희롱하되, 붉은 속치마를 입고 비단 천으로 깃발을 만들어 진편은 큰 술잔으로 벌주를 마시게 한 주령고사(酒令故事)이다. 청춘을 방탕하게 소비한 당현종을 풍류를 제대로 즐긴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니, 봄철의 산수를 보며 떠올린 상상력과 유락취미를 이 한편의 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기녀와 유아녀와 황진이에 대한 소세양의 관심도 같은 맥락에서 떠올릴 수 있다.

의주와 이웃해 있는 탕참(湯站)을 지나 4월8일 드디어 압록강에 도착하여 사군(使君) 민제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그와 창화시를 주고받으며, 귀가

42) 節序如許變 遊子胡不歸 時時馬上夢 猶傍閑雲飛

의 기쁨과 환대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했다, 결국 다시 이별하면서 두 수의 이별시를 짓는다. 그 중 첫수 시에서, ‘그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춘몽 같을 따름이고 내 인생도 망아지가 바위에 난 틈을 달려지나가듯 덧없는 것일 따름이다⁴³⁾’며 쓸쓸한 회한과 함께 무상감을 표현한다.

압록강을 건너 입국한 이후 시들에서는 처처의 광경을 읊고 그 광경을 통해 정서적인 내용을 이끌어내는 정경교용적인 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경관에 정서를 결합하여 이루는 심미적인 형상성이 뛰어나다. <차공부운(次公父韻)>이라고 제명한 시이다.

勝賞饒今日	빼어난 경치는 오늘도 넉넉한데
風懷減舊年	풍류는 옛날보다 못하네
又經佳麗地	또 다시 아름다운 곳 지나면서
重踏綺羅筵	다시 화려한 술자리에 이르네
柳影迷歸路	버들 그림자는 돌아가는 길 미혹하고
波光媚遠天	물결 빛은 먼 하늘에 아첨하네
悲歌南浦別	슬픈 노래로 남포에서 이별하니
腸斷暮雲邊	저녁 구름 가에서 애끊는구나

빼어난 경치는 오늘도 풍요롭지만 풍류를 즐기는 마음은 옛날보다 감했다고 표현했다. 그 옛날이 어느 때를 가리키는 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적 지금 같은 가절에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세양의 이때 나이는 49세였으니, 이미 젊은이는 아니다. 젊었을 적 이곳을 지나며 느꼈을 흥분이 감했을 것은 불문가지. 그러나 또 다시 이 아름다운 곳을 지나면서 화려한 술자리에도 이른다. 돌아가는 객을 미혹하는 버드나무 그림자, 물결 빛은 하늘에 교태부리는 것만 같다. 그런 이곳을 이공보와 이별하고 떠나려니 슬퍼 단장하는 것 같다. ‘유영(柳影)’과 ‘파광(波光)’을 의인화 해 고희적으로 표현한 구

43) …萬事悠悠春夢罷 百年忽忽隙駒馳…

절에서, 그의 감각적인 미감과 유락적인 성향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마지막 연행시는 강원도 고성(固城)에 있는 저탄(猪灘)을 건너며 쓴 시이다. 그 후반부이다.

暗香忽過巖花落	그윽한 향기 홀연 스쳐가니 바위에 꽃 떨어지고
幽響時聞谷鳥鳴	그윽한 소리 때때로 들리니 골짜기 새들이 우는구나
萬斛閑愁添客恨	만곡(萬斛)의 알 수 없는 수심(閑愁)이 나그네 한에 더해지고
斷雲銜日欲西傾	조각구름 머금은 해는 서쪽으로 지려 하네

황해도 평산을 지나 칠령을 넘고 강원도 저탄을 건너며 지은 시이다. 그윽한 향기[暗香]는 꽃이 지면서 남기는 자취이고, 그윽한 소리[幽響]는 골짜기 새 울음 소리임을 깨닫는다. 이 때 알 수 없는 무거운 수심이 나그네의 한에 더해지고, 조각구름 머금은 해는 서쪽으로 지려한다. 알 수 없는 수심(閑愁)을 석양풍경에 투영하고 있는데, 마치 앞에 벌어질 일들을 예견하는 시참(詩讖)인양, 암담한 여운을 남긴다.

이상 귀국길에서 지은 노중시들을 살폈다. 중국에 들어갈 적 여로시와는 시적 정서가 사뭇 다르다. 중국에서의 체류기간이 그에게는 수인 생활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 곳을 떠나 귀국길에 오르자 바다에 풀려난 물고기 새장에서 풀려나 허공을 훨훨 나는 새로 스스로를 비유하며 극도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서 그런 환희의 심정을 누차 표현하였다. 그러나 길을 가다 봄이 지나 여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며 지난 시절에 대한 회한과 무상감으로 시적 정서가 바뀌며 그가 지낸 인생관을 여로시에 표현하기도 한다. 입국한 뒤 지은 시들에서는 처처의 승경을 읊으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는 시들이 주조를 이루며, 석양풍경에 한수(閑愁)를 반영한 마지막 시는 무척 상징적이다. 이처럼 귀국 여로시에서는 시적 정서가 환희에서 회한과 허무감으로 그리고 까닭 모를 수심으로 바뀌었다.

4. 맺음말

소세양의 연행시는 사적인 정서의 표현에 치우쳐 있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연행시라면 일차적으로 사절단으로서의 의지 각오 등을 나타내는 관료적 이미지도 들어있기를 기대하기 마련이다. 여정이 존재하고 그 여정 동안 쓴 시이므로 기행시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북경에 당도한 후에라도 사행단 수장으로서의 자세는 기대했었다. 그런데 소세양의 시에는 그런 관료적 책무의식은 표현되어 있지 않다. 오가다 목격한 민생고를 읊은 두 편의 시가 위정자적(爲政者的) 태도를 드러낸 보인 전부이다.

소세양은 출발부터 사행단 여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시작부터 집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한다. 사적인 정서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황이 기이할 정도이다. 처치의 노정이 다 시료로 수용되어 있음과 동시에, 광경 속에 반영하는 자신의 우울하고 그리운 정서가 북경에 이르는 동안 지배하는 시풍이다. 시와 술 그리고 벗이 그에게 위안을 주고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걸을 떠나지 않는다.

북경에 도착하여 머무는 동안 지은 시에서도 답답함 우울함 그리움의 정서가 지배한다. 북경 거주를 수인생활로 비유하며 체류를 괴로워한다. 술과 시, 유람, 동행인들과의 유희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북경 떠나는 날만을 학수고대한다. 그러다 떠나게 되는 날 새장에서 풀려나 허공을 나르는 새, 못에서 풀려나 바다로 나가는 물고기로 스스로를 비유한다. 귀국하는 여정은 오던 길을 되집어 가는 과정이다. 겨울에 북경을 향해 출발했고 그 다음 해 봄이 다 지난 시점에서 북경을 떠났으니, 해도 바뀌고 계절도 바뀐 것이다. 그러므로 길을 진행할수록 좋은 시절을 여로에 허비해버린 데 대한 회한과 허무감을 곳곳에서 드러내다, 술에 취해 유락하는 것이 부질없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낙이라는 인생관을 표현한 고시를 짓는데서 여로의 회한이 고조에 이르다가, 급기야는 석양을 바라보며 까닭모를 수심에 잠기는 시로 끝맺는다.

이처럼, 소세양의 연행시는 사적인 정서로 점철되어 있다. 이는 그의 시가 역사의식이나 시대의식 사대부로서의 충의감 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개인적인 정서를 문학적으로 형상한 문예미가 그의 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물에 자신의 정서를 융합하는 시적 기법을 통해 미감이 탁월한 시로 완성하였다.

소세양 시의 이러한 특성을 두고 혹자는 시대의식 선비의식이 결핍되어 있다고 평가절하 할 수 있으며, 그가 귀국하여 사행중에 시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던 것도 그의 시풍과 소재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가 사대부로서의 의식 없이 염려(艷麗)한 시로 형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런 시풍이 지닌 상대적 장점은 인정해야 한다. 전적으로 역사적인 가치관에만 의존해 한 시인의 시세계를 재단하는 것 또한 편협한 평가임을 지적할 수 있다. 소세양은 특정 이념이나 당위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일상 정서를 표출하는데 전념하였다. 그래서 독자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작가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 인지하고 그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특성은 시를 지배하는 정서적인 내용은 다소 다를지라도 소세양의 은둔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소세양은 은둔한 뒤 친지들과의 친분 유락 일상을 소재로 하여 그로 인해 느껴지는 정서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그래서 그의 은둔생활 면모와 그가 생활한 공간적 지역적인 모습 혹은 정보가 시속에 풍부하게 내장되어 있다.

소세양은 자의식 강한 성리학자도 충직한 정치가도 아니었다. 인생의 무상함을 고려할 때, 좋은 시절 청춘을 마음껏 향유하고 싶은 것이 그의 본심이었다. 이러한 인생 지향에 장애가 생기면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허무해하면서 자신의 그때그때 정서를 시로 정직하게 형상했으니, 개인 정서의 유미적 표현을 추구한 데에서 그의 시적 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蘇世讓 著, 『陽谷集』, 『韓國文集叢刊』 23, 民族文化推進會 影印標點, 1996.
- 尹采根, 「陽谷 蘇世讓 漢詩 研究 - 16세기 한시사의 일국면 -」,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117-150쪽.
- 李聖炯, 「양곡 소세양 연행시 연구 - “회동관문금(會同館門禁)”의 인식양상(認識樣相)을 중심(中心)으로 -」, 『漢文古典研究』 26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39-69쪽.
(UCI: G704-002001,2013.26.1.004)
- 홍석영, 「陽谷 蘇世讓 攷: 그의 生涯와 文學」, 『文理研究』 1집, 圓光大學校 文理科 大學 學徒護國團, 1983, 22-36쪽.

| Abstract |

A Study on Soh Seyang's Yeonhaengsi(燕行詩)

Lee, Weol-young

This thesis examines Soh Seyang's Yeonhaengsi. Considering that Soh Seyang's poetical works account for most of the poetry of seclusion in the end of his life, it is understood that the Yeonhaengsi is rather holding the key of Soh Seyang's interpretation of the poetic world. Because of this Yeonhaengsi, he was impeached after returning home. Then he eventually became secluded in his hometown, Iksan.

The poetry, on the way to Beijing, revealed the feelings of uncomfortable journeys from the start and expressed the nostalgia for the home. It embraces the journeys of various places as the theme of the poetry, reciting the scenes in various places, and reflecting the nostalgia there.

Stay in Beijing and delay meeting with the emperor. All the while, his poetry was consistent with the feeling of depression and longing. He likened his residence in Beijing to prison life. He spent his days drinking, writing poetry, sightseeing, spending time with his companions and looking forward to the day he left for Beijing. It was a gorgeous spring in those days, but in the poetry of Soh Seyang, the joy of springtime[春興] was shaped by the concern of the springtime[春愁].

In his poetry when he left Beijing, he began poetry by comparing himself to a bird freed from the cage and freely flying in the sky. Furthermore, it was winter when he crossed the Arok River to Beijing, but when he left Beijing, the time had changed and the seasons changed. It was changing from Spring to Summer. Looking at the changed times, he expressed the poetic emotion of remorse for having spent a good time on his journey. The last poem on the returning road contains the symbolic meaning of gazing into the sunset and sinking into the depths of reason[閑愁]. This is understood as a poetic prophecy[詩讖] that recognizes future events.

Thus, Soh Seyang's poetry of the journey to Yeonkyung has little bureaucratic awareness as an agent and symbolizes the transition of personal emotions that he has had in his journey, and it is not like a record book of their works. It emphasizes his emotional value and reveals the tendency of the

poet buried in it. Soh Seyang's poetry of the journey to Yeonkyung was the reason for his impeachment after returning home, reflecting his tendency to pursue merriment only by being buried in personal emotion without his sense of responsibility as an agent. Therefore, his poetry is focused on aesthetic sense of his emotions combined with the view of the landscape.

Key words : Yeonhaengsi, personal emotion, nostalgia, the concern of the springtime, a poetic prophecy, aesthetic sense, drinking writing poetry

